신라 고승 저작 일본 교학 바탕

한국고대사학회 '한일 관계사 새조명' 토론회

■일본의 신라 유학승과 당 유학승(귀국년 기준)

	신라 유학승	당 유학승
문무왕 이전		혜인(623) 혜재(623) 혜광(623)
		승민(632) 영운(632) 법은(639)
		혜운(639) 청안(640) 현이(640)
문무왕대	도행(668)	정혜(665) 묘위(668) 법승(668)
신문왕대	관상(685) 운관(685) 행심(686)	지륜(690) 의덕(690) 정원(690)
	지원(687) 명총(689) 관지(689)	
효소왕대	반룡(696) 신예(693-?)	
성덕왕대	의법(707) 의기(707) 총집(707)	도자(718) 지난(703-?) 지웅(703-?)
	자정(707) 정달(707) 행선(718)	

지난 해 11월 아키히토 일본 국왕이 "간무 일왕은 백제계"라며 일본 왕실이 고대 한반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정한 발언은 한 · 일 양국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고대 한 · 일 교류사를 둘러싼 양국 역사학자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고대사학회가 21~22일 '고대 한 · 일 관계사의 새로운 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합동토론회는 바로 한 · 일 고대사의 쟁점에 대해 양국 역사학계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첫날 '고대 한국과 일본의 불교 교류'를 발표한 정병삼 교수는 먼저 "한 · 일 불교 교류에 있어 한국이 불교를 전해 은전을 베풀었다는 우리 나라 학자들의 인식이나 일본은 불교를 전해 받았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는 인식을 모두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일본 학자들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이뤄진 불교문화 전수는 인정하면서도, 8세기로 넘어오면 한국의 영향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점은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세기 중반이후 국가불교의 모습을 띠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일본 불교가 당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 불교를 직접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8세기에도 경전 보급과 승려 교류를 통해 불교 교학 측면에서 한국 불교는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8세기경 경전보급 · 승려 교류
동대사 창건 · 대불조성 큰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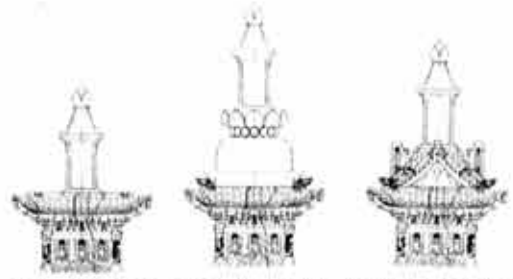
정 교수는 "일본에서 8세기 중반에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경의 대상이 신라에서 구한 경론이었다"며 "원효를 비롯한 신라 승려들의 저작이 대거 사경을 통해 일본에 소개됨으로써 교학 발전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승려들이 신라에 유학하고 귀국해 지도적 활동을 함으로써 신라 불교 문화의 영향은 지속되었으며 동대사의 창건과 대불 조성에도 신라 계통의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일본의 초기 불교 수용이 백제 불교의 영향을 지속적이고 강하게 받기는 했지만 복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흔히 백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법흥사도 백제와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함께 받았으며, 사천왕사 역시 가람 구조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으나 금탑과 사리 등 신라의 불구를 두게 한 것은 신라 불교문화의 영향이 크게 미쳤음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이 따로 따로 불교를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두 나라이상의 불교를 동시에 수용한 면이 보인다"며 "이는 일본 나름의 틀에 맞춰 복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둘째날 '고대 한 · 일 미술 교섭사'를 발표한 김리나(홍익대) 교수는 고대 한국과 일본의 미술 교류를 불교 조각과 공예, 회화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연민수(동국대) 교수는 '고대 한 · 일 외교사'를 발표했다.

기조강연을 한 이기동(동국대) 교수는 "관계사, 교섭사 연구에서는 자국 역사의 입장과 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고 "종래의 고대 한 · 일 관계사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적잖은 결함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학술 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경천사터 10층석탑 상륜부 모양에 대한 세 가지 모델. 왼쪽부터 1902년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한 모양과 1960년대 임시 복원 당시 모양, 원각사터 10층석탑의 상륜부.

경천사터 10층석탑 복원
상륜부 모양새 싸고 논란

1996년부터 국보 26호인 경천사터 10층석탑을 해체해 보존처리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가 6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지금까지도 상륜부 모양에 대한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탑 꼭대기 부분인 상륜부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1902년 찍은 경천사탑 사진과 1960년대 임시 복원한 모습, 경천사탑을 본떠지었다고 전해지는 원각사터 삼층석탑의 상륜부 등 세 가지다.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은 원각사터 10층석탑의 상륜부다. 최상부 첨탑과 옥개석 사이에 팔각지붕 형태의 박공형 장식을 넣은 것인데, 원각사터 탑이 경천사터 탑을 본떴다는 것이 미술사학계의 통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어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902년 찍은 사진이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첨탑 장식과 10층 옥개석 사이의 장식 부분이 빠져 있어 탑 상륜부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복발형 장식이 중간에 끼워져 있는 1960년대 임시 복원된 탑은 후대에 자의적으로 복원한 것이라는 약점이 있다.

"태국, 불교 · 이슬람 충돌없이 공존"
'동국대 두뇌한국21' 유세프 교수 초청 강연

"이슬람은 과연 호전적인 종교인가?"

동국대 두뇌한국(BK) 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이 19일 주최한 '이슬람과 불교의 관계(Islam-Buddhist Relations Today)' 주제의 강연회에서 이슬람 학자인 태국의 아메드 유세프 교수(어섬션 대학 종교철학과 · 사진)는 "한국의 불자들은 주로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이슬람을 접하는데, CNN 등 언론에 의해서만 이슬람을 이해하다 보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인 남방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이슬람은 두 번째로 중요한 종교지만 불교와 이슬람은 별다른 충돌없이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슬람은 중앙아시아에서 불교와 만나게 되고, 코란에도 '붓다'란 용어가 나온다"고 설명한 유세프 교수는 "모든 종교는 문화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을 지니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세프 교수는 "이슬람은 지역 분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6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6개의 이슬람은 '전혀 다른 이슬람'이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은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무슬림들"이라며 "종교와 국가주의가 합해진 이 지역 무슬림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이슬람 전체가 분쟁의 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 자신이 이슬람 교도이기도 한 유세프 교수는 "코란에 나타난 무슬림은 고대의 유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교처럼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양명 · 지눌 사유기반 공통성
'열려있는 인간 가능성' 추구

최근 들어 불교학 연구에서 학제간 접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불교와 유학을 비교 연구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23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43차 학술발표회에서 '왕양명의 심즉리(心卽理)와 보조지눌의 즉심즉불(卽心卽佛)에 대한 일고찰'을 발표한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는 "유학자인 양명과 선사인 지눌은 둘 다 '마음의 철학'을 통해 끊임없이 '열려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명의 대표적 사상인 '심즉리(心卽理, 내 마음이 곧 이치)'와 보조 지눌의 '즉심즉불(卽心卽佛: 마음이 곧 부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을 인식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한 이 씨는 "사유체계는 물론이고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인물은 하나의 중요한 공통적 사고기반을 갖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근대적 인간관을 제시하려 하였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인간의 윤리는 고정되거나 절대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인간 세계의 윤리와 제도, 법규까지도 열려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시대에 대해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미래에 대해서도 열린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高僧 다시보기

세조의 왕사 수미 스님과 삼화상

신(新)유학인 성리학을 국시로 했던 조선왕조의 3대 임금인 태종은 마지막 왕사였던 무학(無學)스님이 입적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불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태종에 이어 세종도 선교양종 36개만 남기고 사찰을 혁거하는 등 중국의 '3무 1종'의 폐불보다 더 심한 탄압이 진행됐고, 이때부터 조선불교는 이른바 '산중불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세종은 만년에 두 아들과 비의 죽음을 보고 숭불(崇佛)로 경도되었고, 세조 역시 부왕인 세종이 꽃 피운 유교 문화에 버금가는 불교문화를 이룩하게 된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불교문화나 불교가 명맥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왕실이나 비빈 뒤에는 수미(守眉)스님과 그의 도우인 신미(信眉)스님같은 고승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스님의 행적은 생몰년조차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을 정도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다소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나 비판적인 기사로 일관되어 있다. 속성이 최씨인 수미 스님은 전라도 영암출신으로, 13세에 월출산 도갑사에서 출가하여 선종판사에 올랐고 1457년(세조 3) 도갑사를 중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미 스님은 옥구진(沃溝鎭)의 병마사였던 김훈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 역시 출가하였다. 속리산 법주사에

궁내 내원당 건립, 복천 · 상원사 중창
법화 · 반야심경 훈민정음으로 간행

출가한 스님은 유생이면서도 숭불에 앞장섰던 동생 김수온(金守溫)과 더불어 세종을 도와 궁궐안에 내원당을 짓게 하고 법회를 주관하였으며 그의 문도들과 복천사와 오대산 상원사를 중창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고려말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태고보우스님과 나옹 혜근스님의 문도들이다. 수미 스님은 태고 스님의 법손이라 알려진 구곡 각운스님과 벽계 정심스님의 제자이며 스님의 도우(道友)인 신미 스님은 나옹 스님의 법손이었다. 세조는 수미 스님을 묘각왕사(妙覺王師)로 받들어 모시고 신미 스님을 혜각존자(慧覺尊者)로 불렀으며 신미 스님과 그의 두 제자 학열(學悅)스님과 학조(學祖)스님을 삼화상(三和尙)이라 하여 숭앙하였다.

이러한 세조의 숭불에 힘입어 두 스님은 출가직후 속리산 법주사에서 만나 함께 수행한 이래 당시 피폐화된 불교를 중흥시키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즉 1458년(세조 3)에 해인사의 〈대장경〉 50부를 인출하였으며 1461년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법화경〉 〈반야심경〉 〈영가집〉 등의 불전을 훈민정음으로 번역 · 간행하였다. 특히 중국 몽산(蒙山)스님의 법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등 조선조 불교가 억압받던 시기임에도 불교뿐만 아니라 민중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이렇듯 숭유억불시대 불교문화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세조의 숭불에 앞장섰던 왕사 수미 스님과 삼화상인 신미 스님과 그의 제자 학열, 학조 스님은 조선전기 불교계의 뚜렷한 고승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2002년도 부루나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기 2546년 3월 10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강의 (저녁 7시 반 - 9시)

◆수요일 : 오전 10시 반은 불교입문반

불교를 올바로 배워서 미신과 우상에 빠지지 않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개강 특별 법문 : 3월 10일 (일요일)
도문 큰스님 초청 개강 축하법회

● 강좌안내
1. 불교 기초 의식
2. 불교 교리
3. 불교 경전 강의
4. 불교사
5. 포교방법론
6. 불교 문화
7. 불교 실천 및 참선수행

● 기 간 : 1년 과정
● 교 수 진 : 조계종 스님과 동국대학교 및 승가대 교수님
● 구비서류 : 입학지원서,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 학 식 : 3월 10일 11시, 본 대학 법당
● 특 전 : 조계종 포교사 응시 자격 출가 희망자 교육비 전액부담 전원 수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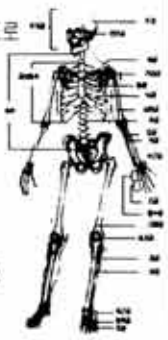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부루나포교원(법명사)
주지 선일 합장 032) 577-5108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3일안에 깨닫는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열기 힘든 깨침을 단 3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하고자 할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 고도의 정신집중이 요할 때

영혼의 안식처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24시간 전화상담 받습니다.

춤바음수련 心田堂 대광사

선방주위환경
3만평 부지에 수련지 전용 원대식목조주택, 수목원, 산책로(호수), 역수 등산로

생식마을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추천서

생식의 1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 완료 : 현미, 율무쌀, 귀두, 마늘, 보리, 밀,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계란, 홍파리, 검실, 홍삼, 김,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명자차, 참깨, 가시, 등 30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